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924천 km ²	G D P	5,150억 달러 (2013년)
인구	173.62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2,966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Naira (N)
대외정책	친서방 개방정책	환 율(달러당)	157.31 (2013년 평균)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1억 7,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371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와 5.1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9위)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부국으로,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한편으로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1년 4월 대선에서 당선된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7월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면서 대선 직후의 극심한 정치 불안은 진정되었으나,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공격이 빈발하면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7%대를 기록할 전망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 부문이 GDP의 14%,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락과 산유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석유부문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농업은 GDP의 30.9%(2012년)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Boko Haram의 테러 공격에 따른 사회불안, 국제유가 하락세와 원유생산량 감소 등의 악재 속에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전년(5.4%) 대비 상승한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재정지출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세로 적자 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원유 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흑/적자 여부와 폭이 결정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공부문 임금인상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음.
- 재정지출 증가가 2015년의 대선 및 총선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는 2014년에도 GDP 대비 1.7%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됨.

□ 통화정책 운용을 통한 수입물가 억제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세

- 소비자물가는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 왔음. 특히 2012년에는 연료·전력 보조금 감축, 홍수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12.2%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3년에는 전년의 일시적 물가상승 요인이 정리됨에 따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8.5%로 안정되었으며, 2014년에도 수입물가 상승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8.3%로 안정될 전망이다.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10.6	4.9	4.3	5.4	7.0
재정수지 / GDP	-4.2	0.5	0.4	-2.3	-1.7
소비자물가상승률	13.7	10.8	12.2	8.5	8.3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및 농업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구조가 여전히 1차산업에 편중되어, 국제유가 변동에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전력 부족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경제발전 저해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특히 수송 인프라와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
 - 넓은 국토, 많은 인구,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로, 철도 등 수송 인프라의 부족과 노후로 급증하는 운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화물의 내륙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전력공급능력은 4,500MW 정도로 우리나라의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며, 발전설비 노후화로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고, 인구의 약 50%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며, 산업계도 디젤 발전기에 의존함.

- 주요 원유수출국임에도 내수용 정유시설의 유지, 관리가 부실하여 유류의 국내 공급기반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목재, 석탄 등 가연성 재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황폐화되는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약 4%에 육박함.

나. 성장 잠재력

□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가스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371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와 5.1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9위, 아프리카 1위)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개발의 중심국가임.
 - 원유 매장량은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이나, 일일 원유 생산량은 232만 배럴(2013년)로 아프리카 1위임. 원유의 약 90%가 남부 Niger Delta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주로 Chevron, ExxonMobil, Total 등 석유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개발·생산되고 있음.
 - 세계 8위의 원유수출국으로서 생산된 원유의 9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인도, 브라질 등임.
- 나이지리아는 현재 세계 제5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임. 주요 수출대상국은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나,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1999년 9월 Bonny 섬에 38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최초의 LNG 생산시설이 완공된 이후 2008년 6번째 생산시설이 완공되면서 연간 2,200만 톤의 LNG 및 400만 톤의 액화석유가스(LPG)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나이지리아는 남부 Bayelsa 주의 Brass에 총투자액 최대 150억 달러의 대규모 LNG 단지를 건설하여 연간 1,000만 톤의 LNG를 20년간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 완공시 나이지리아의 총 LNG 생산량은 연간 3,0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요 참여자인 ConocoPhilips가 2012년 참여를 철회하여 현재까지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음.

□ 아프리카 제1의 인구대국으로 풍부한 내수시장 보유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약 1억 7,000만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제7위임. 따라서 대형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함.
-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10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억 8,900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제5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한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 증대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정부는 2011년 4월 치러진 대선 전인 3월에 최저임금을 종전 월 7,500 나이라(약 5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8,000나이라(약 120달러)로 대폭 인상하여 구매력 확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 통신업, 금융업 등 비석유산업의 성장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중산층의 확대는 내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나이지리아는 2014년 4월 GDP 산정기준 개편을 단행, 2013년 명목 GDP가 81조 나이라로 개편 전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대륙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IMF는 실질GDP 성장률 계산의 기준년도를 최소한 5년마다 갱신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는 지난해까지 20년 이상 1990년을 기준년도로 산정해 왔음.

- 금번 개편을 통해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경하고 이전에 GDP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영화, 통신 등의 부문을 포함시킨 결과 GDP 규모가 급증하였음.
- : 개편 결과 통신 부문은 2013년 나이지리아 GDP의 9%를 차지한 반면, 석유 부문의 비중은 33%에서 14%로 급감하였음.
- 미국의 컨설팅 그룹 McKinsey & Company는 2014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 경제가 2030년까지 연 평균 7.1% 성장해 GDP 규모가 1.6조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동 보고서는 2030년이면 연간 소득 7,500달러 이상인 나이지리아 가구가 3,500만 가구에 이를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현재 재정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원유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동시에 빈곤, 전력 부족, 낮은 농업생산성, 높은 주택 및 에너지 가격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음.
- : 나이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1일 생활비가 1달러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2004년 55%에서 2010년 61%로 상승하였으며, 평균 기대수명은 54세에 불과함.

다. 정책성과

□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 - 세계 20대 경제국으로의 도약 목표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0월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Nigeria Vision 20: 2020) 발표를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부족, 부정부패 등 경제성장 저해 요소 개선,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전력 부족과 부정부패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지수임.

□ 전력공급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난 지속

-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량 확대를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3%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도 135kWh로 이웃의 非산유국인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음.
- 송배전망의 열악함도 전력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송전 시스템은 국가 전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전용량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부는 전력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나이지리아 전력공사 (PHCN)의 민영화를 결정, 2013년 송전 부문을 제외한 발전 및 배전 부문의 민영화를 단행하였으나 전력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실업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상승 추세

-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업률은 2013년 말 22%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3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3. 대외거래

□ 원유수출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 유지

- 석유산업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상품·경상수지의 흑자폭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지속해 오고 있음. 다만,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에 따른 상품수출액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4.0%) 대비 다소 하락한 3.7%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재개로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2008년 말 530억 달러에 달하였던 외환보유액은 나이라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2010년 말에는 323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상품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에 힘입어 2013년 말에는 431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그러나 2014년에는 정부가 수입물가 억제를 목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재개함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이 349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비율도 전년(5.2개월)보다 악화된 4.1개월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 외채상황은 채무재조정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상태

- 2000년대 초반에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정부의 채무재조정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2014년 말 5.3%로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다만,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2013년 19.5%에서 2014년에는 24.1%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D.S.R은 2014년 말 0.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어 여전히 1% 미만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14,459	12,554	20,353	20,711	21,800
경 상 수 지 / G D P	3.9	3.0	4.4	4.0	3.7
상 품 수 지	31,509	34,716	42,318	45,360	40,223
수 출	77,883	96,369	95,677	96,739	93,013
수 입	46,374	61,653	53,359	51,379	52,790
외 환 보 유 액	32,339	32,640	43,830	43,084	34,859
총 외 채 잔 액	15,528	19,478	28,100	29,090	30,893
총 외 채 잔 액 / G D P	4.2	4.7	6.1	5.7	5.3
D S R	0.5	0.4	0.4	0.4	0.5

자료: IMF,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여당 내 세력다툼, 여-야 갈등으로 정치 불안 잠재

- 2011년 대선에서 집권당인 인민민주당(PDP)의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5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폭동이 발생하여 800여 명이 사망하고 65,0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또한 PDP 내에서도 북부 지역 출신들의 불만이 잠재되어 있음.
- 인민민주당에는 북부(이슬람교도 지역)과 남부(기독교도 지역)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직을 8년씩 번갈아 맡는다는 묵계가 있는데, 북부 출신 Umaru Musa Yar'Adua 前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둔 2010년 병사함에 따라 차기 대선 후보는 북부 인사의 몫이었음에도 2011년 1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부 출신의 Jonathan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자 논란이 일어났음.
- Jonathan 대통령은 2015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내 이슬람 세력은 기독교도인 Jonathan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 나이지리아의 4개 주요 야당들은 오는 2015년의 대선 및 총선 실시 전까지 합당을 통해 거대 단일 야당을 탄생시켜 집권 여당을 패퇴시키고 정권 교체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야당의 대립으로 주요 법안의 의회 승인 지연

- 정부와 야당간의 뿌리 깊은 대립으로 인해 주요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계류되는 일이 잦아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2008년 의회에 처음 제출된 석유산업법(Petroleum Industry Bill)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음. 따라서 나이지리아의 석유 부문은 정책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까지 더해져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극심한 빈부격차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1인당 GDP가 2013년 2,966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일 생활비 1달러 이하인 절대 빈곤층이 총 인구의 약 61%에 달함.
 - 이는 2004년 기준 54.7% 대비 증가한 것으로, 7% 안팎의 지속적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을 반증함. 유엔개발계획(UNDP)은 나이지리아를 부의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불공평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한 바 있음.
-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인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 나이지리아의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는 25점으로 177개국 중 144위에 올라 전년(27점으로 176개국 중 139위)보다 부패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종족-종교적 갈등 상황 지속

-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북부(이슬람)와 남부(기독교)로 양분되어 종족·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은 서구식 교육·문화를 죄악시하고 이슬람 율법의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수많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여 나이지리아 사회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에 의한 테러 공격 악화

- 2013년 1월 Boko Haram 내의 온건파 세력이 정부군과의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Boko Haram은 주로 학교와 민가를 습격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마을에 방화하는 등의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
- 특히 4월 14일 북동부 Chibok의 여학교를 습격, 280여 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하여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동 사태에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여 국민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당초 이슬람 율법에 의한 자치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내세웠던 Boko Haram은 그 동안 세력 확장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조직원들을 포섭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정치적 극단주의자와 각종 흉악범까지 혼재되어 내부에서도 몇몇 파벌이 형성되는 등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측이 Boko Haram과 평화 정착의 협상을 벌여도 특정 파벌만이 합의하고 다른 파벌들은 합의 내용에 불응하여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 국제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가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Boko Haram의 공격으로 최소한 2,053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음.

□ Niger Delta 반군 세력의 공격으로 이 지역의 치안 불안 지속

-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은 Niger Delta 지역에 소재하여, 이 지역의 치안 안정 여부가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Niger Delta 해방운동(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MEND) 등 반군 세력이 석유이권의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생산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05년 250.2만 배럴에서 2008년 211.3만 배럴로 감소하였음.

- 정부는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반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실시하여 부분적 성과를 거두어, 일일 원유 생산량도 2013년 232만 배럴로 회복되었음.
- 그러나 지금도 일부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반군 세력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경우 원유 생산에 다시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국제관계

□ 최대 원유 수출대상국인 미국과의 우호관계 지속

- 미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에너지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으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나이지리아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2013년 나이지리아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절반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 중국은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Sinopec 등이 나이지리아의 유전, 가스전 개발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 진출한 Chevron, ExxonMobil, Eni, Total 등 서방 석유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음.
- 2012년 초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유로화를 매각하고 홍콩으로부터 위안화를 매입하여 전체 외환보유액 중 약 1.4%를 위안화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그 비율을 10%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 밝혔음.
- 이는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정미공장 건설과 공항 개발 등의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는 등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보임. 중국은 2013년 나이지리아의 수출대상국 중 19위에 그쳤으나, 수입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음.

□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내의 리더이자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 내 분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 사태에 개입하여 국제적 역할을 공인받은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5년 파리 클럽과의 채무재조정 이후 외채상환태도 개선

- 나이지리아는 2005년 파리 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통해 2005년 73억 달러, 2006년 109억 달러 등 총 182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중장기 외채의 연체비율이 2009년 6월 말 2.7%에서 2012년 6월 말 2.1%, 2013년 6월 말 1.3%, 2014년 6월 말 0.8%로 점차 하락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5등급, S&P와 Fitch는 BB- 등급 유지

- OECD는 2010년 10월 개최한 CRE 회의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지표 유지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후 가장 최근의 2014년 10월 CRE 회의까지 계속 동일한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음.
- S&P와 Fitch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나란히 BB-로 유지하고 있음. 2013년 1월 S&P는 석유 부문의 양호한 수익, 비석유 부문의 높은 성장률, 낮은 공공부채, 안정적인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B+에서 BB-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표 4 >

한·나이지리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1~10	주요 품목
수 출	854	1,571	899	자동차 및 그 부품, 무선통신기기
수 입	1,466	2,307	2,459	원유, 석유제품, LPG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의 원유와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으로, 석유 생산과 농업, 금융 등 비석유 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4~5%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4년에는 Boko Haram의 테러 공격, 국제유가 하락, 원유생산량 감소 등의 악재 속에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2011년 대선 직후의 혼란은 진정되었으나, 여당 내 북부 지역 출신 의원들의 불만 고조로 2015년의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분파간 갈등은 물론 정부와 야당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음.
- D.S.R은 0.5%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단기간의 외채 상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도 최근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이지리아의 국별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C3 등급으로 평가코자 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